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NIGHT OCEAN

가제 : 한밤의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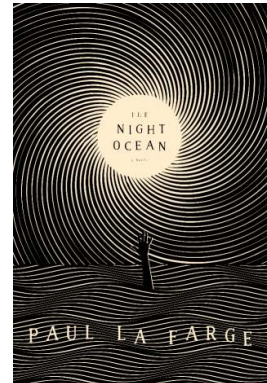
저자 : Paul La Farge

출판사: Penguin Press

발행일: 2017년 3월 7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소설



20세기 미국 호러 소설의 선구자, 러브크래프트와 주변 인물들을 소재로 한 특별한 이야기

미국의 대표적인 호러, 공상과학 소설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H.P. Lovecraft)는 ‘공포 소설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품만큼이나 독특했던 그의 삶을 소재로 삼아 비밀과 스캔들, 정신의학, 통속소설의 요소를 두루 갖춘 흥미로운 소설이 탄생했다. 「뉴요커」 기고자이자 바드 소설상(Bard Fiction Prize), 캘리포니아 도서상(California Book Awards)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작가는 평생 러브크래프트의 팬이었지만 비슷한 연배의 다른 작가들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의 작품과 삶을 바라본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과 제목이 같은 이 소설은 한 정신의학자의 통찰력을 렌즈로 삼아 서스펜스 소설처럼 느껴지지만 러브 스토리인 특별한 이야기로 완성됐다.

정신과 전문의인 마리나 월렛은 이혼한 지 한참이 지난 뒤 전 남편 찰리로 인해 난데없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그가 추운 1월의 어느 날, 누가 봐도 자살로 보이는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것이다. 같이 살진 않아도 가끔 통화는 했었기에 그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알고 있었다. 브루클린에서 홀로 지내던 찰리는 그야말로 되는대로 하루하루를 흘러 보냈다. 수면제를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입에 털어 넣고, 그 바람에 하루에 열두 시간씩 잠을 자고 깨어 있어도 정신이 맑지가 않아 여기저기 다치기 일쑤였다. 남편이 다소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한 마리나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아보는 게 어떨겠냐고 제안했는데, 찰리는 의외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제 발로 마리나가 소개한 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고 2주 정도 입원까지 하면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마리나는 찰리가 참 오랜만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에 대해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고, 쾌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찰리는 잠긴 문을 강제로 부수고 나가 무작정 도로에서 젊은 대학생이 모는 차를 얻어 타고 근처 호숫가로 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온데간데

없고 입고 있던 옷가지와 신발만 물가에서 발견된 것이다.

한 작가의 삶에 집착하다 사라진 남자,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열정을 파헤치는 정신과 전문의

찰리는 이혼 후 폐인처럼 살기 전, 미국의 전설적인 호러 작가 러브크래프트에 푹 빠졌었다.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의 작품과 생애에 몰입한 마리나의 남편은 특히 1934년 여름에 러브크래프트가 자신보다 한참 어린 팬 로버트 발로우(Robert Barlow)와 두 달가량 같이 살았던 일에 유난히 관심을 쏟았다. 그 위대한 작가가 발로우의 식구들이 사는 플로리다 집에서 함께 머물렀다고 전해지는데, 문제는 발로우가 게이라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대체 왜 같이 살았을까? 그냥 친구였을까, 뭔가가 더 있었을까? 찰리는 그 의문을 풀고 싶어서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확신한 순간, 새로운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그간 찰리가 해온 이런 엉뚱한 일들과 사라지기 직전의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나 찰리의 부모님은 분명히 자살했다고 단정지었지만, 마리나의 생각은 달랐다. 정신과 의사이자 찰리의 아내로서, 그는 분명 어딘가에 살아 있다. 찰리를 더 강하게 지지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무너진 마음을 안고 마리나는 사라진 남편의 발자취를 쫓아 간다. 그가 그토록 집착하던 한 작가의 삶과 비밀과 이번 실종 사건이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마리나는 짝이 찾으려던 진실을 직접 찾으러 나선 것이다. 그리하여 수십 년의 세월, 온타리오 시골 마을부터 뉴욕, 플로리다, 러브크래프트의 고향인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덴스부터 멕시코시티에 이르기까지 미 대륙의 방대한 거리를 오가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소설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인물로도 꼽히는 러브크래프트와 그 주변을 떠돌던 괴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 중에는 러브크래프트와 함께 이 소설과 같은 제목의 작품을 공동 집필한 로버트 발로우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중미 문화 전문가였던 발로우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실존 인물이다. 그 외에도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와 제임스 블리쉬, 주디스 메릴 등 30-40년대에 활발히 활동했던 SF 작가들이 등장한다. 피터 스트라우(Peter Straub)로부터 “폴 라파즈는 열정과 장난기를 담아 러브크래프트의 그림자라고 할 만한 영리하고 깊이 있는 탐험기를 만들어냈다.”라는 호평을, 레브 그로스먼(Rev Grossman)으로부터 “불가능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이 소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좋아하기 힘든 존재들을 향한 러브레터다.”라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사만다 헌트(Samantha Hunt)로부터 “소설인가 역사인가? 어느 쪽이든 스릴 넘치고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고 흥미진진한 문학작품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천재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 소개>

폴 라파즈(Paul La Farge)는 『The Artist of the Missing』 (FSG 1999), 『Hausmann, of the Distinction』 (FSG 2001), 『Luminous Airplanes』 (FSG/Fourth Estate 2011), 『The Facts of Winter』 를 쓴 작가로 「뉴요커」 등 여러 간행물에도 작품이 실렸다.

제목 : THE HATING GAME

가제 : 증오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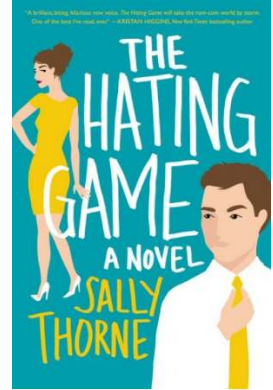
저자 : Sally Thorne

출판사: William Morrow Paperbacks

발행일: 2016년 8월 9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회사 합병으로 한 사무실에서 마주보고 일하게 된 두 남녀, 험거 게임에 뒤흔치는 증오 게임

누군가를 증오하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과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둘 다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이고, 상대방을 떠올리면 뱃속이 꼬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심장이 갑자기 쿵쿵대고, 입맛을 잃고,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스트레스 혹은 극심한 긴장 때문에 핏속에 아드레날린이 위험 수치로 떠 다니니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다. 아주 강한 감정이 한 사람의 생각과 생활을 온통 집어 삼켜버리는 것이다. 사랑과 증오가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 다름 없다고 보는 이 이론은 이 소설의 주인공 루시 허튼의 지론이다. 벅슬리 앤 가민 출판사에서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루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딱 두 사람밖에 없는 사무실에서 마주 놓인 책상에 앉아 있는 또 한 명의 전무이사, 루시와 숙명의 라이벌인 조슈아 템플먼 때문이다. 호주 출신의 작가가 데뷔작으로 선보인 이 소설에서 루시와 조슈아는 애정인지 증오인지 그 경계가 아주 미묘한 뜨거운 감정에 온종일 사로잡혀 있다. 먼저 한 발이라도 더 성공하기 위해 유치 찬란한 일까지 서슴지 않으며 갖은 애를 쓰는 두 사람의 우스꽝스러운 경쟁과 변해가는 감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소설이다.

루시가 몸담고 있던 가민 출판사가 재정 악화로 벅슬리 출판사와 마지못해 합병한 것부터가 두 사람이 서로와 잘 지낼 수 없는 운명으로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두 출판사는 경제 사정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책 읽는 것도 사치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이러다 쫓딱 망하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았지만, 책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확연히 달랐다. 벅슬리 출판사는 책을 '상품'으로 보고 무조건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반면 가민 출판사는 책, 특히 문학 작품은 예술 분야이며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 존경하고 아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겼다. 그러니 서로를 돈에 눈이 먼 악당, 시대에 맞지 않게 정신 못 차리고 꿈이나 꾸는 비현실주의자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갈등은 두 CEO들 사이에서도 해결되지 않아서 합병 후에도 회사는 두 경영자가 동시 집권하는 구도로 운영되었고 두 사람을 바로 곁에서 보필하는 전무이사도 두 명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직원들과 동떨어진 공간에, 루시와 조슈아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각자 다른 CEO를 모시며 하루 종일 으르렁대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사랑과 증오, 경계가 모호한 격한 감정의 사이에서 오가는 열정적인 두 남녀의 로맨틱 코미디

첫 눈에 사랑에 빠지듯, 두 사람은 첫 눈에 서로를 증오하는 마음이 끓어올랐다. 루시는 웃음이나 재치라고는 한 점도 없이 꾀꾀하고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일은 마침표 하나까지 과하게 따져대는 조슈아가 마음에도 들지 않았다. 조슈아 역시 일에 몰두해야 할 직장에 형형색색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괴짜 같은 행동을 일삼고 진지함이라곤 한 점도 없이 항상 지나친 낙관주의로 일관하는 루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이런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수동적 공격성’의 진수를 보여주는 각종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게임으로 어떻게든 상대를 못살게 굴려는 싸움과 전쟁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두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뉴스가 들려오면서 전쟁은 더욱더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다. 회사 경영진에 한 자리가 비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기로 한 것이다. 누가 봐도 가장 유력한 후보는 루시와 조슈아이고, 두 CEO도 두 사람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은 자리는 단 하나, 둘 중 한 사람만 승진하여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원래 서로에게 뒤질세라 주당 60시간씩 몸이 부서져라 일하던 두 사람은 이제 운명의 면접을 앞두고, 강도와 집중력 면에서 ‘헝거게임’에 전혀 뒤지지 않던 전투 태세에 더욱더 기름을 끼얹기 시작한다. 면접 일자가 다가올수록 한층 예민해져 서로를 향한 증오심도 한층 더 강렬해지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 밤 늦도록 일하다가 엘리베이터에 오른 루시를 조슈아가 뒤따라 와서 얼른 따라 타더니, 비상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킨 것이다! 루시는 “적에게 이렇게 한순간 목숨을 잃는구나”하는 생각에 절망과 공포를 느꼈지만, 조슈아는 루시에게 진한 키스를 시작한다. 평소 관계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도 모자랄 사건인데, 루시는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낯선 감정이 저 깊은 곳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

루시의 시각에서 이어지는 소설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어떤 결말로 갈지 어느 정도 예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뻔하거나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새도 없을 만큼 배꼽 잡는 사건들과 신선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술술 이어진다. 평범한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젊은 두 남녀의 애틋한 감정 변화를 미세한 부분까지 잘 집어낸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샬리 손(Sally Thorne)은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The Hating Game』은 첫 번째로 완성한 데뷔 소설이다.

제목 : BRAIN STORM

가제 : 정신착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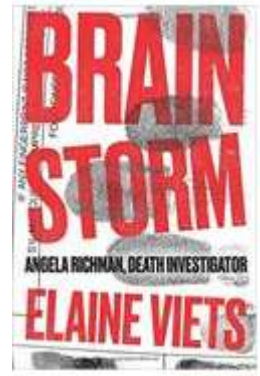
저자 : Elaine Viets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6년 8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유서 깊은 상류층이 장악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 사건, 진실을 밝히려 나선 검시관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힘들 만큼 막대한 부자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폐쇄적인 마을을 무대로, 부유하고 힘 있는 세력이 되거나 그들과 절친한 사람들은 인정 받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당하는 환경에서 검시관으로 20년째 일해 온 앤젤라 리치먼을 주인공으로 한 미스터리 시리즈가 출간될 예정이다.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부잣집 도련님들의 안타까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병원으로 실려간 앤젤라의 위기를 시작으로, 서로에게 적대적이던 두 의사의 갈등과 죽음, 살인 의혹, 그리고 위기를 딛고 검시관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시험하는 앤젤라의 도전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앤젤라는 세인트루이스에서 50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초토 포레스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았다. 부모님은 이곳의 가장 유서 깊은 가문인 뒤 프레시스 집안에서 일했다. 앤젤라의 어머니는 저택 가정부이자 요리사로 일하면서 뒤 프레시스 가에서 키우는 개를 산책시키고 자잘한 심부름까지 해야 했고, 가장 나이 많은 노부인의 끊임 없는 부름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 고된 삶을 살았다. 앤젤라의 아버지는 100년 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선 오래된 저택 곳곳을 관리했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일한 대가로 겨우 장만한 집을 유산으로 물려 받아 홀로 살아온 앤젤라는 올해로 마흔한 살, 20년째 검시관으로 일해왔다. 그런데 부모님이 평생 챙기고 돌본 뒤 프레시스 집안의 말썽쟁이 십대 손자 두 명이 페라리를 몰고 가다 처참하게 사고를 당한 날, 앤젤라에게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새벽 두 시, 고요한 밤하늘에 금속성 굉음이 울려 퍼진 굉음은 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장을 자던 앤젤라의 휴대전화는 경찰의 호출로 요란스레 울리기 시작했다. 사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듣고 평소보다 더욱 서둘러서 사건 현장에 출동한 앤젤라가 늘 해오던 대로 사체를 확인하던 중, 느닷없는 뇌졸중 증상이 찾아왔다. 초토 포레스트 지역에서 가장 존경 받는 신경과 전문의인 포터 그래부아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앤젤라는 의사로부터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뇌졸중을 의심하는 앤젤라에게 의사는 그런 병을 앓기에는 “너무 젊고 몸도 건강하다”고 확신하며 그대로 퇴원시킨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19일 동안 총 여섯 번의 뇌졸중이 연달아 앤젤라를 덮쳤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다. 그래부아 의사의 오진으로 하마터면 저 세상으로 갈 뻔했던 앤젤라를 살려낸 건 놀랍게도 그래부아 박사와 달리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 받는 또 한 명의 신경과 의사, 잼 트레이비스 트릿이었다.

해묵은 지역주민들의 차별과 유난스러운 방어심으로 살인자로 지목된 의사, 힘겨운 진실공방

트릿 박사는 외지 사람, 아웃사이드어 취급을 받았다. 두 의사 모두 같은 병원에서 일했고 객관적인 실력과 경력 면에서는 트릿 박사가 훨씬 우월했지만 지역 사람들은 물론 병원에서도조차 트릿 박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대부아 박사는 늘 고급스러운 옷을 잘 차려 입고 대대로 물려 받은 재산 덕분에 풍족하게 살아온 인물답게 항상 여유 있고 다정하게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인물로 지역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성인이자 영웅의 이미지로 각인된 반면 트릿 박사는 포레스트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당당함은 오만함으로 비난 받고 예의라곤 없는 그대부아 박사의 방해꾼이라는 취급을 받았다. 겨우 깨어난 앤젤라는 죽다 살아난 것이 트릿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복잡한 심정을 느낀다. 그토록 친절했던 그대부아 박사는 자신을 조용히 죽음으로 몰고 갈 뻔했는데 평소 아주 불쾌한 인간으로 여겼던 트릿 박사 덕에 살아나다니, 이게 무슨 인생의 장난인가 싶다. 그리고 검시관으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뇌의 사고능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슬슬 염려가 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회복에 박차를 가하던 앤젤라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동안 그대부아 박사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유력한 용의자로 트릿 박사가 지목되었다는 것이다. 트릿 박사가 그 점잖은 상대에게 “사기꾼, 살인자!”라고 고향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쏟아지고, 심지어 그대부아 박사에게 “당신이 환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폭언을 했다는 목격자들까지 나타났다. 바로 그 대화가 오간 다음 날 그대부아 박사가 죽임을 당한 채로 발견된 것이 트릿 박사를 향한 혐의를 굳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개월째 병원에 누워 독한 약을 버텨내며 회복 중이던 앤젤라는 찜찜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트릿 박사를 범인으로 몰지만 앤젤라는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평생 살인자 누명을 쓰고 살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한 앤젤라는 아직 성치 않은 몸이지만 직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예상대로 회복이 덜된 몸 상태에서 무리하다 극심한 후유증이 이어지고, 앤젤라 자신도 스스로의 사고 능력을 확신할 수가 없다. 게다가 앤젤라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벌일수록, 방어심이 유난히 강한 초토 프레스토 지역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녀의 노력을 방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앤젤라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병리학자인 캐서린의 도움을 받아 병으로 흩어진 지력과 정의감을 그러모아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끈질기게 이어간다.

앤소니 상, 애거서 상, 레프티 상 등 미스터리 소설에 주어지는 상을 여러 차례 거머쥔 작가가 새로이 선보이는 범죄 미스터리 시리즈다.

<저자 소개>

일레인 비에츠(Elaine Viets)는 베스트셀러 시리즈 『Dead-End Job』 등 세 가지 시리즈를 통해 총 29권의 미스터리 소설을 발표했다. 미국 미스터리소설 작가협회(Mystery Writers of America)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알프레드 히치콕 미스터리 매거진」 등 여러 매체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SUNSHINE OVER WILDFLOWER COTTAGE

가제 : 와일드플라워 코티지의 햇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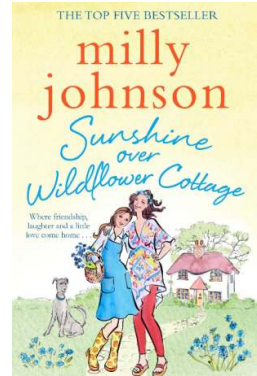
저자 : Milly Johnson

출판사: Simon & Schuster UK

발행일: 2016년 6월 16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소설



영국의 인기 로맨스 소설작가가 새롭게 선보인 새 출발과 비밀, 우정에 관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

마음 속에 비밀을 품은 채 새 출발을 꿈꾸며,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찾는 한 여자가 야생 동물 보호소라는 뜻밖의 장소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엉뚱하고 발랄한 인물들과 함께 펼쳐진다. ‘로맨틱 소설가 협회(Romantic Novelists’ Association)’로부터 2016년 ‘올해의 로맨틱 코미디 소설’로 선정된 『AFTERNOON TEA AT THE SUNFLOWER CAFÉ』의 작가가 이번에는 사랑스러운 동물들을 소재로 삼아 특유의 위트와 소소하고 친근한 인물들이 가득 담긴 새로운 이야기를 완성했다. 사랑과 웃음, 우정이 고루 섞인 이야기다.

비브라는 애칭이 더 익숙한 비비옌은 신문에서 아이언미스트의 야생동물 보호소 ‘와일드플라워 코티지’의 구인광고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친절한 목소리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몇 마디 채 나누지도 않았는데 바로 합격이니 일하러 오라고 해서 비브를 놀라게 했다. 범죄 경력이 없고, 동물을 학대한 일만 없으면 무조건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는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현찰로 바로 지불되고, 식사까지 다 제공된다니 비프로선 더없이 좋은 일자리였다. 구인광고에 나온 일은 사무직이니까, 동물을 아주 싫어하는 혹은 극도로 무서워하긴 해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이상한 확신으로 비브는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착한 낯선 시골 마을은 짙은 안개가 깔려 신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매력적인 곳이었다. ‘이곳이라면,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려나?’ 이곳 저곳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그녀가 아이언미스트까지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목적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와일드플라워 코티지를 책임자인 제럴딘은 비브가 첫 전화통화에서 느낀 것처럼 더 없이 다정하고 친절한 상사였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야생에서 심하게 다친 동물들을 데려다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돌봐주는 이곳은 지역 수의사인 히스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고, 제럴딘이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서 운영을 맡고 있었다. 제럴딘은 비브를 보자마자 비슷한 또래의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뭇 뜻이 기뻐했다. 그 동안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서 오래 함께하지 못했기에, 한 눈에 봐도 동물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서글서글한 성격의 비브가 제럴딘은 마음에 꼭 들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됐다.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야생동물 보호소로 찾아온 주인공, 말 못할 과거의 사연과 사랑

비브는 본격적으로 와일드플라워 코티지의 이런저런 일들을 돕기 시작한다. 하지만 직원이 부족한 형편 상 어쩔 수 없이 동물들과 만나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깃털 달린 종류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탓에 몇 차례 위기를 겪는다. 그리고 조금씩, 원래 이곳으로 온 목적이 비브의 마음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한다. 제럴딘을 비롯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다정한 마을의 분위기, 큰 일은 아니지만 보람이 느껴지는 일을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일상은 그동안 비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안겨준 것이다. 하지만 동물보호소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성, 그 곳에 살고 있는 니콜라스 레이턴을 꼭 만나야 한다. 비브가 새로 만난 동료들에게 그토록 끔찍 감추려는 과거의 비밀은 무엇일까? 니콜라스를 왜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동물들 틈에 섞여서 정체를 숨기면서까지 그를 지켜보려고 할까?

한편, 비브가 떠나온 도시에 홀로 남은 비브의 엄마 스텔은 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 평생 자신을 아껴주는 진실된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야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언. 친절하고, 사려 깊고, 그간 겪은 일들로 의심 많은 스텔이 아무리 시험해보도 자신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 없었다. 그렇게 찾던 사람인데, 왜 스텔은 선뜻 그의 손을 잡지 못하고 주저할까? 일요일마다 모여서 주변 소문을 공유하고 수다를 떠는 스텔과 친구들의 모임 ‘올드 스파이스 걸스’를 통해 전해지는 노년기의 흥미진진한 애정 생활과 온갖 풍파를 다 겪고도 여전히 인생을 고민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비브의 사연과는 또 다른 재미와 흥미를 제공한다.

올해 6월 영국에서 출간된 후 첫 주에 판매량 14위에 오른 소설로, 두꺼운 팬 층을 거느린 작가의 매력적인 유머와 편안하면서도 뜻밖의 결말이 기분 좋은 놀라움을 선사한다.

<저자 소개>

밀리 존슨(Milly Johnson)은 「선데이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로 소설 10권이 선정된 인기 작가이자 시인, 칼럼니스트, 유머작가, 라디오 진행자이다. 우정과 가족, 배신, 맛있는 음식과 삶에서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마법 같은 일들, 예기치 못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 왔다.

제목 : A LIFE WITHOUT YOU

가제 : 네가 없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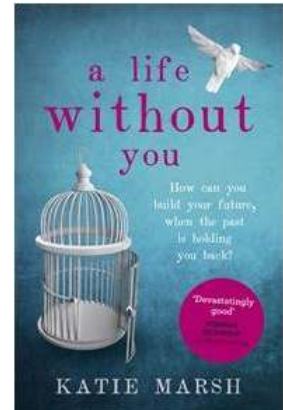
저자 : Katie Marsh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6년 7월 14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설레고 긴장되는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 울린 전화, 몇 년째 연락도 없던 엄마의 구조 요청

하늘이 정해진 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이미와 드디어 부부가 되는 날, 조는 아침부터 속이 불편했다. 머리도 어지럽고, 쿵쿵대는 심장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다. 결혼식 날 모든 신부가 그러겠거니 생각했지만 자꾸만 올라오는 헛구역질 때문에 문턱이 닳도록 욕실을 드나드는 조를 보고 있자니 아버지도, 여동생 릴리도 속이 바짝바짝 탈 지경이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릴리의 말처럼 끝내 엄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죄책감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조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잘 알고 있었다. 불과 몇 십분 후면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질 그 시점에, 이토록 아름답게 장식된 호텔에서 제이미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계속 의구심이 들었다. 자신이 그에게 어울리는 짝이 맞는지, 제이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신경을 건드렸다. 그런 속도 모르는 제이미는 신부 대기실 문 앞까지 찾아와 또 다시 사랑을 고백했고, 조는 그의 절절한 고백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조금 뒤 울리기 시작한 릴리의 전화벨 소리가 그와의 대화를 끊어버린 것이 반가울 정도였다. 그런데 조가 힐끗 보니 동생의 전화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맥 아줌마였다. 조가 벌써 몇 년째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 릴리는 나중에 통화하면 된다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조는 그냥 받으라고 직접 통화 버튼까지 눌러줬다. 그때만 해도 그 통화가 조의 그 날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조도 릴리도 전혀 생각지 못했다.

조는 열여섯 살 때 집을 떠나버린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 릴리는 그래도 결혼식에 초대해 해 야 하지 않냐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지만 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릴리에게 전화를 건 맥 아줌마는 지금 당장 조가 와야 한다고,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와서 좀 도와줘야 한다고 다짜고짜 고향을 쳤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냥 무시하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조는 돌연 엄마가 있는 곳에 가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마음 속에서 강하게 일어난 그 감정을 조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침부터 머릿속을 짓누르던 고민들, 결혼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과 오늘따라 유난히 떠오르던 어린 시절의 엄마 생각이 겹쳐지면서 맥 아줌마의 전화가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결국 조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호텔을 빠져 나와 얼른 택시에 올라탔다. 그리고 곧장 엄마가 붙잡

혀 있다는 경찰서로 향했다.

어둡고 무거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고, 용서 받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관계들

런던 시내를 빠져나간 택시는 한창을 달려 낮선 동네에 도착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조를 보고 맥 아줌마는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조 역시 아줌마가 어릴 때 본 모습과 너무 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파나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한 손에 와인 잔을 들고 항상 침착한 말투로 이야기하던 아줌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껌을 잘근잘근 씹어대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놀라기에는 일렀다. 조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 마주한 엄마는, 조의 기억에 남아 있는 모습이나 꿈속에서 만났던 예전의 엄마 모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모습도, 그리고 정신 상태도 모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엄마. 맥 아줌마는 엄마가 병으로 아주 천천히 기억을 잃어가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대체 그 동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사연을 알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를, 자신만 두고 혼자 도망쳐버린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조는 엄마를 그토록 비난하며 살아온 자신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제이미를 결혼식장에 남겨두고 도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용서 받기 위한 조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큰 감동과 함께 무거운 과거를 딛고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케이티 마쉬(Katie Marsh)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며 영국 전역의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용기와 놀라운 사연에서 영감을 얻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소설 『MY EVERYTHING』은 「이브닝 스탠다드(Evening Standard)」로부터 ‘2015년 가장 주목할 만한 여름 데뷔소설’로 선정됐다.

추가 리뷰

「Red magazine」 6월의 최고 도서:

<http://www.redonline.co.uk/reviews/book-reviews/best-new-books-to-read-this-july#>!

‘Emotional and brilliantly written’ 「Fabulous magazine」

‘A poignant, heartfelt and refreshing tale about family, secrets, love and forgiveness. A stunner of a novel. Read it!’ **Heat**

‘A story that will evoke every emotion that lurks within your heart and pull each string firmly.

Devastating is the perfect word, yet it is also beautiful and passionate and exquisitely written. I am beginning to run out of words of praise for *A Life Without You*, and I want everyone to go out and buy a copy, and read it. It is absolutely wonderful.' **Random Things Through My Letterbox**

'Superbly written. Tender & poignant. Five star read.' **The Last Word Review**

'I loved *A Life Without You*! Snotty tears, but a smile on my face and also in my heart. Just perfect.' **Anne Williams**

'Katie Marsh has touched my heart...[her] second book shows just what a talented author she is. *My Everything* was my favourite book of 2015, and I fail to see another book that can come along this year and take the title of my favourite book of 2016 away from *A Life Without You*. I love everything about this book, from the striking cover to the beautiful tale that lies within its pages. Katie Marsh is a hidden gem within the world of fiction and I cannot recommend her books enough. I will be shouting about this book to everyone who will listen. *A Life Without You* is not to be missed.'

Kelly's Corner Blogspot

'A great read, a gem of a novel proving that Katie Marsh is a fantastic author. *A Life Without You* has everything that I am looking for in a book. It made me sob, and it made me smile. To be totally honest, it was a really hard review to write because how often and in how many ways can you tell how much you loved something – and I really, really loved the book. Gorgeous, just gorgeous, beautiful and evocative novel about love, hope and forgiveness. Strongly, highly recommended!'

On My Bookshelf

제목 : MY EVERYTHING
가제 : 내 모든 것
저자 : Katie Marsh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5년 8월 2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떠나기로 결심한 아내, 바로 그 날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

한나는 얼굴에 토스트 한 장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잠에서 깬다. 겨우 눈을 뜨고 보니 부엌 전등은 그대로 켜 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다. 안돼, 오늘은 뭔가 달라야 하는데. 이런 식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면서 한나는 축축한 토스트를 볼에서 떼어내고 혼자 열심히 돌아가고 있던 아이팟을 껐다. 팔꿈치를 힘겹게 일으키고 부엌을 둘러보다가, 그만 와인잔을 쓰러뜨리고 말았다. ‘맥베스’ 위로 와인이 피처럼 물들어간다. 이 연극에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일부러 물들였다고 둘러대면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이들의 어이없다는 표정이 섰다. 늘 스캔들을 찾아다니는 십대 아이들의 특성상, 한나 자신의 사건도 일주일 내에 도마 위에 오르겠지. ‘탐, 난 오늘 떠날거야.’ 한나는 연습삼아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어본다. 두려운 감정이 속에서 찢어지고, 하며 퍼져갔다. 분명 탐은 입을 짹 벌리고 눈을 가늘게 뜬 채 마지막 공격을 해올테지. 그는 공격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메일, 음성사서함,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방식인 소리지르기까지. 그는 항상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방법을 알고 제대로 이용할 줄 안다.

일단 눈을 좀 부치려고 침실로 가려는데, 침실 바닥에 누워있는 탐이 눈에 들어왔다. ‘들어오면서 왜 나 안 깨웠어?’ 묵묵부답. 코고는 소리만 요란하다. 한나는 오늘밤도 늘 그래왔듯이 탐이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 줄 알았다. 저렇게 코를 고는 걸 보니 일보다 위스키에 심취해있다가 들어온 게 분명했다. 겨우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뭔가 바닥을 박박 긁는 소리에 한나는 선잠이 깨고 말았다. ‘탐, 좀 조용히 자.’ 돌아오는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하다. 한나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그가 누워 있는 바닥 쪽을 쳐다봤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탐의 몸은 뒤틀려있고 눈은 뜬 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얼굴은 잿빛에 비뚤어진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아우성이 쏟아진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침대 다리를 붙잡으려는 듯 바닥을 세게 긁고 있었다. 한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고 가는 무언가와, 뜻하지 않은 위기 속에 다시 돌아보는 사랑의 의미

5년 반 동안 부부로 지낸 탐에게 마침내 작별을 고하기로 마음 먹은 한나는, 떠나기로 결심한 바로 그 날 집에서 바닥에 쓰러진 탐을 발견한다. 뇌졸중이었다. 겨우 서른다섯의 나이에 찾아온 믿기 힘든 병이었다. 탐은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

었다. 일하러 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 하려는 한나에게, 지난 몇 개월을 철저히 아내를 무시하고 단절하며 살았던 남편이 이런 상태가 되다니 한나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다. 긴 시간 재활훈련을 시작한 탐은 그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한다. 망가진 결혼 생활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결심과 더불어, 한나는 다시 없을 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탐은 정말 한나가 자신을 처음 만났던 때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떠날 준비가 끝난 한나가 꿈꾸던 새 삶 대신 자신을 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케이티 마시(Katie Marsh)는 영어학을 공부하고 프리랜서 법원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한 후 미국 하원 공식 속기사로 일했다. 위 작품은 그녀의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 AGILE AND ADAPTIVE

가제 : 빠르고 정확한 적응력

저자 : Elizabeth Stanley

출판사: Avery

발행일: -

분량 : -

장르 : 건강



스트레스, 불확실성, 변화의 상황에서도 차분한 마음으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훈련 법

20만 년 전에 동굴에 살았던 사람들과 고층 빌딩 사이를 오가며 사는 현대인들은 차려 입은 겉모습이야 확연히 다르지만, 머릿속은 똑같다. 즉 신경의 생물학적인 연결 방식과 형태는 그 옛날과 다르지 않다. 당시 인간의 조상들은 야생 동물들과 먹을 것을 두고 목숨을 건 경쟁을 벌여야 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일이 닥치고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집중력, 신체 에너지가 상승했지만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신속히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아왔다. 오늘날 우리는 이 조절 기능을 잃고 말았다.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생물학적으로는 그때와 동일한 물질들이 분비되고 작용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 진정되지 못하고 원상태로 되돌아오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스트레스 체계에 계속 ‘불이 들어온’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관련된 온갖 질병이 성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MIT에서 MBA까지 따고 군 정보부에서 4년간 일하며 유능한 인재로 살아온 저자는 2004년,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말았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 불면증과 함께 일시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증상에다 불안 장애까지 찾아왔다. 오랫동안 지속된 스트레스와 좀처럼 안정될 시간이 없었던 몸이 완전히 고장 나버린 상태에서, 저자는 마음챙김 명상과 요가를 시도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던 중, 마음챙김 명상을 하더라도 우리 몸과 마음이 주변 세상과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자는 진정되지 않는 신경계를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신체 기반 치료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신경계의 조절 기법을 신체 기반 치료, 마음챙김 명상과 접목시킨 ‘마음챙김 기반 마음 훈련 법(MMFT)’을 마련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으로 MMFT의 효과를 확인한 후 이를 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응급구조원, 경찰 등 법 집행관, 전문 운동선수, 교사, 정보부

요원, 정치인, 치료사, 기업체 경영진 등에게 가르쳐주었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극찬을 받았다. 이 책에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달래고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훌륭한 마음 훈련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체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키워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얼어 붙은 듯 멈춰버리는 경우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몸에 이로운 스트레스는 높이고 해로운 스트레스는 의식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완벽하게 해내려는 고집으로 인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해석하고, 신뢰하는 방법과 상황에 따라 이 신호를 적절히 무시하거나,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경우를 알려준다. 그 밖에도 스트레스로 인해 자동 제어장치가 작동된 것처럼 습관이나 그 순간의 감정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대신 핵심 가치와 목표를 잊지 않고 이를 토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목차>

머리말. 디지털 시대와 석기 시대 인간의 생리적 특성의 결합

1장. 마음이 튼튼한 전사들

2장. 마음 훈련이란?

3장. 마음 훈련과 전사들의 전통

4장. 모른 척 계속 밀어 붙인 대가

5장. 기능을 높여야 하는 것과 낮춰야 하는 것

6장. 주기를 깨라

7장. 선택의 폭을 넓혀라

8장. 마음 훈련, 선택, 감정

9장.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 두 가지 방법

10장. 전사의 여정

결론.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확실한 생활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적응하는 법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스탠리(Elizabeth Stanley)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보안 기술을 가르치는 부교수이자 같은 대학 외교학부에서 운영하는 보안연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훈련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하고 글을 기고해 왔다. 저서로는 『Paths to Peace: Domestic Coalition Shifts』 등의 저서를 발표했으며 특히 한국 전쟁에 관한 책 『War Termination and the Korean War』로 2009년 국가, 국제 안보 분야 최고의 도서에 수여되는 에드가 S. 퍼니스 상(Edgar S. Furniss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NEVER OUT OF SEASON

가제 : 사라진 제철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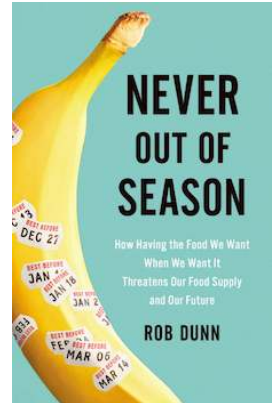
저자 : Robert Dunn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7년 3월 1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과학



먹고 싶은 음식을 아무 때나 먹는 생활이 식량 생산과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 이유

12,000년 전 인류의 조상들의 식생활과 지금 우리의 식생활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양성’이다. 그 먼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먹는 식물과 동물의 종류가 수백 가지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돌아 다니다가 찾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먹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계절에 따라 먹는 음식도 달랐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철식품’의 범위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계절이나 환경 변화에 맞게 강이 깊으면 깊은 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기후가 되면 거기에 맞게 먹는 음식도 광범위하게 달라졌다. 지구 전체로 보면 문화권과 기후, 생활 지역에 따라 그 차이는 또 다시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기술로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이 발전하고, 그 기술이 점차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식품의 다양성은 대폭 감소했다. 식품 무역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전까지 접하기 어려웠던 식품을 쉽게 먹어볼 수 있게 되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농업이 세계화될수록 어느 시기든, 어디를 가든 다 비슷비슷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이름 붙인 식물만 30만 종이 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무려 80 퍼센트는 딱 12종에서 얻는다. 그리고 섭취 열량의 90 퍼센트는 15종의 생물에서 얻고 있다. 지구촌 가난한 나라, 빈곤한 지역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콩고에서는 국민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80 퍼센트 이상이 딱 한 종류의 작물에서 비롯된다. 바로 카사바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쌀로 거의 모든 열량을 얻는 곳이 있고, 남미에서는 어린이들의 몸에서 배출된 탄소 성분의 절반 이상이 옥수수에서 나온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이처럼 한정되고 제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생물학적 다양성을 거스르는 이 거대한 변화는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인간은 물론 생물 전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품종이 단일화된다는 것은 단 하나의 해충, 단 한 가지 바이러스만 찾아와도 어마어마한 양의 작물이 한꺼번에 그 영향을 받고, 폭삭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의 지속적인 생산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기업화된 식품 공급망,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식량 생산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나 아주 저렴한 값으로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는 천재적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재앙과 다름 없다. 저서 『The Man Who Touched His Own Heart』

로 인간의 역사와 생물학적인 진화, 과학을 접목시켜 현대인이 생각하는 건강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 저자는 먹는 음식으로 눈길을 돌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식생활과 식량 생산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바나나부터 닭까지, 단 10종의 생물체에 무서울 정도로 의존하는 현재의 식생활이 자연환경이나 인간 모두에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조목조목 분석한 내용들은 저자의 철저한 조사와 탄탄한 근거로 뒷받침된다. 식품의 양보다 질을 보존하는 것이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쉽고 흡입력 있는 설명으로 전하는 유익한 정보서다.

<목차>

1. 그릇마다 가득 담긴 바나나
 2.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섬
 3. 병충해 폭풍
 4. 도망가봐야 한 순간일 뿐
 5. 적군의 적은 친구
 6. 초콜릿 테러리즘
 7. 씨앗의 미래
 8. 포위작전
 9. 풀을 먹는 존재들
 10. 헨리 포드의 정글
- (이하 생략 - 총 15장까지 구성)

<저자 소개>

롭 던(Rob Dunn)은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생물학자로,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응용생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National Geographic」, 「Natural History」, 「New Scientist」 등 다양한 매거진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저서로 『The Man Who Touched His Own Heart』, 『The Wild Life of Our Bodies』, 『Every Living Thing』 등을 발표했다.

제목 : DROPPING THE STRUGGLE

가제 : 발버둥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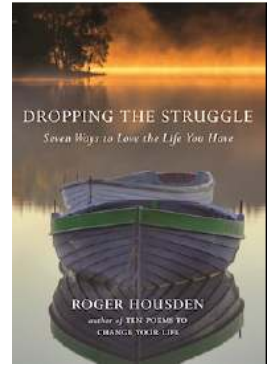
저자 : Roger Housden

출판사: New World Library

발행일: 2016년 9월 6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자기 자신과 삶을 지금과 다르게 만들려는 공연한 몸부림에서 벗어나 자유와 만족감을 얻는 법

우리의 삶은 넘어야 할 산과 해결해야 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찾아온다. 엄마의 자궁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혼자 애쓰던 때부터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는 고난과 각종 문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냥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나 인생을 다른 모습으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쓰지 않는다면 뭔가 달라질까? 그렇게 애쓰지 않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닐까? 저자는 이 책에서 분명히 달라진다고 단언한다. 인간관계와 직업, 영적인 발전까지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더 나아지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태도를 버릴 때 비로소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성취감이 찾아온다.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선사한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저자는 수년 동안 삶을 바꿔보려고 고투를 벌인 끝에 깨달은 사실을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전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성공한 삶을 이룩하고도 뭔가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저자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깨닫고 싶다는 열망으로 수년간 홀로 고투를 벌였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인간이 겪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은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러나 ‘생각’ 자체를 멈추고 나서야,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자기 주장과 해결 전략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삶의 진리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즉 삶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이미 모두의 마음 깊숙이 자리한 깊은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기를 쓰고 고투를 벌이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먹을 것과 쉴 곳이 주변에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분명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은 인간 본연의 특성이다. 그러나 발버둥 치며 애쓰는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뿌리부터가 다르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대로 분해되고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발버둥은 신체적, 정신적인 자아가 발산하는 아우성이며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자아의 정체성이 한껏 드러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문제는 노력과는 다른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것, 즉 사랑과 삶의 의미, 자신의 존재감,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절대로 선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이 같은 목표는 모두 자아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에 있다. 그러므로 그곳

에 닿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버둥이 아닌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저자는 그것을 ‘항복’이라 칭하고, 순순히 항복하는 자세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절대 같은 뜻이 아님을 이 책에서 설명한다. 항복은 곧 ‘수용’이며,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저항하려는 자아의 고집스러운 태도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의 행동과 경험이 만든 덫에서 움짱달짝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논리와 이유, 판단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를 얻고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무익한 발버둥에서 벗어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 일곱 가지 방법이 차근차근 소개된다.

<목차>

머리말. 시에 담긴 지혜의 말
특별해 지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사랑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시간을 지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알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저자 소개>

로저 하우스덴(Roger Housden)은 영국에서 태어나 현재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세계 곳곳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Ten Poems』 시리즈를 비롯해 스무 권이 넘는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AGING WITH SOUL

가제: 늙어가는 몸, 깨어나는 영혼

저자: Thomas Moore

출판사: St. Martin's

발행일: 2017년 가을

분량: -

장르: 자기계발



저명한 심리치료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야기하는 노화의 새로운 의미, 무한한 가능성

인간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일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가 주목하는 건 젊은 세대다. 일단 중년이 넘어서면, 사회 전반에서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한정된 자원이 나누어지거나 가능성이 제시되는 일도 없다. 노화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으로 정의할 수 없다. 그 말 속에는 “알맞은 정도로 숙성되는 것, 또는 성숙해지는 것”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수십 년을 뿌리 내리고 살아온 나무나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 흉내 낼 수 없는 풍미가 형성된 와인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인생에 따라 점차 더욱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지닌 존재가 된다. 따라서 그 이전과는 또 다른 형태로 삶을 즐기고 새로운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의미를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화의 진정한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할 뿐만 아니라, 늙는 것 자체를 꺼리고 심지어는 뭔가 위협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늙고 있고, 그러므로 이 엄청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나이 드는 것에 관한 새로운 관점, 신체 기능에 제약이 생긴다는 단순한 잣대를 버리고 더 현명해지고, 충동성은 덜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발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중요한 변화에 주목하려는 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저자는 바로 이 점, 인간이 신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노화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몸이라는 물리적인 요소가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인간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영혼은 반대로 더욱 충만해진다. 비전, 이해하는 능력, 감각이 발달하며 르네상스 시대에 한 현자가 남긴 말처럼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내부 활동은 증대되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젊음과 노화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몸의 형태는 시간이 가면서 변하지만 내면의 젊음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나이와 상관 없이 언제나 이 내면에 남아 있는 젊음의 정신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 독특한 관점을 심리학적 젊음과 노화의 개념과 함께 상세히 이야기한다.

나이가 들고 있다는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면에 남아 있는 젊음을 더욱 활성화하고, 영혼과 정신의 생명력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면 단순한 신체의 노화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삶의 즐거움과 지적 수준은 한층 강화되고 젊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저자는 노화를 대하는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삶 전체를 끊임없이 무언가가 ‘시작’되는 과정으로 보고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있고 깨어 있는 존재, 더욱 뛰어난 지각 능력을 갖추고 영적으로 안정된 존재로 발전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전한다.

<목차>

머리말

1부. 통과 의례

1장. 노화의 첫 맛

2장. 나이든 신체, 젊은 영혼

3장. 노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

2부. 위기를 기회로

4장. 서글픈 감정: 행복으로 가는 길

5장. 질병을 출발점으로

6장. 성적 성숙

3부. 노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

7장. 배움의 즐거움

8장. 놀고, 일하고, 은퇴하고

9장. 선배로서 거둘 수 있는 성취감

4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열어라

(이하 생략 - 총 14장과 결론으로 구성)

<저자 소개>

토머스 무어(Thomas Moore)는 시라쿠스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를 취득하고 수도승, 음악가, 대학교수로 일했다. 전 세계를 돌며 전인 의학, 영적 개발, 심리치료, 예술에 관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44주간 머무른 저서 『Care of the Soul』을 비롯해 영적 개발에 관한 19권의 책을 썼다.

제목 : A YEAR BETWEEN FRIENDS

가제 : 두 친구의 1년

저자 : Maria Alexandra Vettese, Stephanie Congdon Barnes

출판사: Abrams

발행일: 2016년 11월 8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5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두 친구가 사진과 글로 나눈 우정, 소품 만드는 법과 레시피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사람이 친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5천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사는 마리아와 스테파니, 두 저자가 택한 방법은 사진과 편지. 국내에도 번역된 책 『1년의 아침(A Year of Morning)』 프로젝트를 통해 아침에 각자가 찍은 사진을 1년 동안 매일 공유해온 두 사람은 아무런 상의 없이 내키는 대로 찍은 사진이 놀랍도록 비슷한 감성을 자아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터운 팬 층을 확보했다. 사람들은 매일 두 사람이 올리는 사진을 보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했다. 딱 1년만 해보자는 아침 사진 프로젝트는 그 뒤로 계속 이어졌고, 두 번째 책 『A YEAR BETWEEN FRIENDS』가 탄생했다.

이 책의 서문을 쓴 몰리가 두 사람을 처음 이어준 징검다리였다. 2005년에 마리아의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된 몰리는 소박하면서도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마리아의 사진과 간결하면서도 큰 울림이 있는 글에 푹 빠졌다. 곧장 마리아의 팬이 되어 이메일과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친구가 된 후, 몰리는 비슷한 시기에 사진 공유 사이트인 플리커(Flickr)를 통해 스테파니의 사진도 처음 접했다. 당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면서 손으로 직접 뜨개질한 아기자기한 작품들을 선보였던 스테파니의 사진과 글 역시 몰리에게는 어딘가 특별하게 다가왔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상 속에 예술을 편안하게 담아내고 손으로 천천히 삶에 필요한 것,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것을 만드는 스테파니의 일상을 공유하던 몰리는 “매일매일이 예술이다.”라는 글을 남긴 마리아의 마음과 통하는 데가 있었다. 마침내 2006년 12월의 어느 날, 몰리는 마리아와 스테파니가 각자 올린 두 장의 사진을 보고 그 속에 담긴 감성이 얼마나 비슷한지 절감했다. ‘3191 마일 떨어져서’라는 이름의 1년짜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날이었다. 마리아와 스테파니가 매일 아침에 찍은 사진을 올리기로 한 이 재미난 약속은 평온하면서도 아름답고,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미적 요소가 가득했다. 수천 명의 팬들은 누군가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특권 같은 기회를 누렸고, 마리아와 스테파니 두 사람 역시 그 과정을 함께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다. 솔한 화제를 남기며 성공리에 마무리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협업은 이어졌다.

두 사람은 저녁마다 찍은 사진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두 권의 사진집을 함께 낸 데 이어 사진, 각자 개발하거나 친구, 가족들에게 들은 특별한 요리법,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과 의미, 그리고 일상에서 느끼는 생각을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공유했다. 이 책은 10년간 지속된 두 사람의 긴 대화의 일부를 담은 것으로, 각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일상에서 예술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진하게 담긴 사진과 글을 만나볼 수 있다. 가족을 꾸리고, 아픈 일과 기쁜 일을 모두 겪으며 서로 그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월별로 분류되어 계절 변화와 함께 담겨 있다.

<목차>

몰리 와이젠버그(Molly Wizenberg)의 서문

머리말

1월

2월

3월

4월

(이하 생략 - 12월까지)

뜨개질 견본

레시피, 만드는 법 찾아보기

<저자 소개>

마리아 알렉산드라 베티스(Maria Alexandra Vettese)는 메인 주에서 사진과 디자인 예술 활동을 하면서 상점 '모어 앤 코(More & Co.)'를 운영하고 있다.

스테파니 콩던 반스(Stephanie Congdon Barnes)는 오리건 주에서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조형예술, 텍스타일 분야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업체와 개인의 의뢰를 받아 사진을 촬영해주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제목 : KINDNESS BOOMERANG

가제 : 친절 부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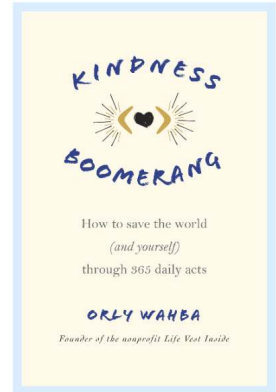
저자 : Orly Wahba

출판사: Flatiron Books

발행일: 2017년 1월 3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하루에 딱 한 가지씩, 열두 가지 친절을 골고루 베풀며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

웃음에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진심 어린 친절도 전염성이 있다. “웃는 낯에 침 뱉으랴”는 말처럼 먼저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무자비한 태도로 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를 다 알면서도 사는 게 팍팍한 요즘 사람들로써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웬지 손해를 볼 까봐, 바보 취급 받거나 이용당할 까봐, 혹은 상대가 몰라줄 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이익만 먼저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사회가 되었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한 교사가 이 우울한 흐름에 반짝 반기를 들고 나섰다. 모두가 알지만 두려움과 자존심에 실천하지 못하던 ‘친절의 전염성’과 부메랑처럼 결국 친절을 먼저 베푼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친절의 긍정적인 흐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 저자는 비영리단체 ‘내 안의 구명조끼(Life Vest Inside)’를 설립하고, 그 굳은 신념을 비디오와 강연, ‘친절 댄스’, 마라톤 행사, 방송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해 왔다. ‘친절 부메랑(Kindness Boomerang)’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200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wAYpLVyeFU>). 이 책은 친절함의 전파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365일 동안 매일 부담 없이 베풀 수 있는 친절한 행동과 마음가짐 365가지가 매일 날짜 별로 소개된다.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는다는 믿음으로 그 가능성을 설득하러 나선 저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 별로 누구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목표를 간결하게 제시한다. 친절한 행동이나 마음가짐은 총 열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인지하고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나에 대한 친절’과 함께 ‘몰래 베푸는 친절’, ‘관계상에서의 친절’, ‘평범한 예의로 행하는 친절’처럼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종류도 있고 ‘집에서 행하는 친절’, ‘자연에게 행하는 친절’, ‘학교에서 행하는 친절’, ‘낯선 이에게 행하는 친절’처럼 상황이 나 장소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도 있다. 예를 들어 1월 1일의 목표는 “하루, 일주일, 1년 동안 이루고픈 목표를 목록으로 써 보자. 일단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이며 이는 ‘나 자신에 대한 친절’에 속한다. 1월 2일의 목표는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말로든 생각으로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이며 이것은 ‘몰래 베푸는 친절’에 해

당된다. 각각의 목표에는 왜 그러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내용과 함께, 감동적인 문구와 격언, 실제 사례 등이 함께 제시된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친절의 전염성을 입증해 보인 저자의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와 설득에는 그대로 실천하는 당사자와 그 친절을 받는 대상 모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냉혹하게만 느껴지는 세상이 결코 그런 모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에너지 가득한 책이다.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별 목표와 설명으로 구성됨.

<저자 소개>

오를리 와흐바(Orly Wahba)는 브루클린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2011년 비영리 단체 'Life Vest Inside'를 설립하고 친절과 사랑, 존중하는 마음이 가진 힘을 학생, 학부모, 일반인에게 전파하며 교육자, 기업가, 강연자로 활동 중이다. 직접 제작한 '친절의 부메랑' 비디오는 조회수 2천만 건이 넘어섰고, '친절 댄스'를 개발하여 플래시몹 행사도 수년째 연달아 개최하여 2015년에는 45개 국가에서 참가했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따돌림 예방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